

화북상업지역 체비지 매각 지지부진

분양가 노형동 상업지역 육박... 11필지 미분양 상태 제주시 "이달 중 호텔부지 타용도로 변경 사업에 속도"

제주시가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내 잔여 체비지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나 분양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는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체비지 분양가격이 노형동 상업지역에 준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지방식 개발은 토지주에게 보상금 대신 개발 이후 가치가 오른 땅을 돌려주는 것이다.

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시는 지난 2009년 7월 화북상업지

역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해 달라는 토지주들의 청원에 따라 2022년말 준공을 목표로 화북상업지역(화북동 1400번지 일원)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총 개발면적은 21만 6920㎡, 사업비는 568억원이다.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5차에 걸친 매각을 추진했으나 전체 28필지(964억원) 가운데 17필지만 낙찰이 이뤄졌고 호텔용지(1만 9432㎡)와 10필지(일반상업용지 8필지·대규모 상업용지 2필지)는 분양이 이뤄

지지 않고 있다.

이는 체비지 분양가격(평당 800만~1300만원)이 노형동 상업지역에 육박하는 것과 높은 감보율이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감보율은 토지구획정리사업(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도로·공원·학교부지 등의 공공용지와 공사비용 충당을 위해 토지를 공출받는 비율이다. 각 토지주들은 이 비율을 감안해 환지를 받게 되는데, 최고 50%를 초과할 수 없다. 이곳의 평균 감보율은 56.65%, 토지주 감보율은 43%이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호텔부지 용도를 다른 용도로 전환해 분할 매각

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도내 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갑정 평가사에게 물어보니 분양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돼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이같은 상황 속에서 환지방식으로 진행을 하다보니 감보율이 높고 분양하기에도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아 체비지 분양이 안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체비지를 팔아서 그 돈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잔여 체비지가 팔리지 않아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있다"며 "이달 안으로 호텔부지를 타용도로 변경하는 것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대리기자 bigroad@ihalla.com

PHOTOGRAPHY BY THE SPACE OUT COMPETITION FOR THE SPACE OUT COMPETITION

BY MIA JOE KIM

PHOTOGRAPHY BY THE SPACE OUT COMPETITION FOR THE SPACE OUT COMPETITION

BY MIA JOE KIM



Participants take part in the Space Out Competition in a forest on the western island of Jeju, with the winner being the forest and most stable forest.



"1회용 컵 없는 제주 만들기" 2일 제주시 용담동 스타벅스 서해안로 DT점에서 열린 '1회용 컵 없는 청정 제주 조성을 위한 협약식'에서 환경부 장관과 원희룡 제주지사, 송호섭 스타벅스 대표이사 등이 친환경 캠페인을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1회용 컵 없는 제주 만들기 '맞손'

환경부, 어제 스타벅스 등과 시범사업 업무협약

환경부는 2일 스타벅스 제주서해안로 DT점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등 6개 기관과 함께 '1회용 컵 없는 청정 제주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한국공항공사, 스타벅스, 에스케이텔레콤, 씨제이네이션스, 행복커넥트 등이 참여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1회용 컵 없는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각 분야 기업들이 힘을 모았다. 제주시도 내 위치한 스타벅스 4곳의 매장이 1회용 컵 없는 시범운영 매장으로 선정됐으며, 7월 6일부터 본격 운영된다.

소비자가 시범운영 매장에서 음료를 구매하면 대화용 컵 보증금(1000원)을 지불(개인컵 사용 고객 제외)하며, 사용한 대화용 컵을 스타

하늘길방음도서관 수탁기관 '진통'

주민비대위 "잘못된 평가로 졸속 선정...재공모를" 제주시 "정량평가·전문가 구성 선정위원회서 심사"

제주시 용담동 지역에 건립된 하늘길방음작은도서관과 관련 수탁기관 선정을 둘러싸고 지역주민들이 반발하는 등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하늘길방음작은도서관은 사업비 24억8400만원을 투입, 지난 2020년 5월 공사에 착공해 3일 준공됐다. 이 도서관 사업은 공항소음피해지역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제주도 조성공사를 추진했고, 제주시는 수탁기관 선정 및 운영을 맡게 된다.

도서관은 공항소음대책지역 3종 다지구인 용담3동(581-15) 지역에 지상 3층 연면적 918.17㎡ 규모로 건축됐다. 1층은 어린이 서가와 주방·기계실 등이, 2층은 일반서가와 프로그램실·관리실, 3층은 열람실과 강의실·창고 등을 갖추고 있다.

제주시는 당초 준공과 함께 도서관을 개관할 예정이었으나 지역주민들이 도서관 운영을 맡을 수탁기관 선정에 반발하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시가 지난 4월 민간위탁사업 공고 결과 3개소가 접수됐고, 시는 이 가운데 청소년 관련 사단법인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단체는 준공일로부터 오는 2023년말까지 도서관 운영을 맡게 된다. 이에 대해 지난날 말 선정에서 탈락한 2개소가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이윤형기자 yhle@ihalla.com

이와관련 용담2동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 자생단체로 구성된 하늘길방음작은도서관 주민유치비상대책위원회는 2일 도서관 앞에서 반대성명서를 발표하고 "잘못된 평가항목과 적절한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졸속으로 민간위탁자를 선정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6년간 주민 손으로 이룩한 숙원사업에 대해 주민의견 수렴도 없이, 주민참여도 목살한 채 근거없는 운영배제에 분노한다"며 "도서관 설립 취지에 맞게 공공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를 반영한 민간위탁 선정을 재공모하라"고 촉구했다.

주민비대위는 그러면서 특정단체에 졸속으로 넘겨버린 민간위탁 평가결과에 불복하며 행정불복종 등 특단의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시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업부서 자체적으로 객관적인 정량 평가와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정성 평가 심사로 청소년단체를 수탁기관으로 지정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용담동이 원하는 수탁기관은 근거가 있으면 검토가 가능하지만 공공소음대책지역 관련 법령에 근거가 없다"며 "역량이 있는 비영리 전문기관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 '멍때리기 대회' 소개

미국 유력 일간지 워싱턴포스트가 최근 코로나19 속 워싱턴포스트가 각광받고 있는 서귀포시 치유의 숲에서 열린 '멍때리기 대회'를 소개하며 화제다.

2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5월 30일자 A20면에 '한국에서 팬데믹 스트레스에 도전하는 이공국의 휴식을 위해 경쟁하다(South Korea's pandemic-stressed compete for most Zen)'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신문은 '재택 근무 부모님들, 재택수업 학생들과 팬데믹으로 지친 이들을 위해 힐링이 필요한 장소는 치유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는 제주도 남쪽 치유의 숲이 최적지'라고 치유의 숲을 소개했다.

워싱턴포스트지 한국담당 김민주 기자는 직접 대회에 참가해 참가자 3명 멍때리기 대회를 만든 '옝쓰양'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멍때리기 대회는 90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장 낮고 안정적인 심박수를 기록한 사람이 우승하는 대회로서 이번 대회에는 28명이 참가했고 제주도민 미용사 K씨가 우승했다.

시 관계자는 "웰니스 관광의 최적지로 서귀포시의 위상을 높여나가는 계기가 된 것 같다"며 "앞으로도 워드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멍때리기 대회는 2014년 국내 예술가 옝쓰양이 만들었고, 이후 홍콩과 네덜란드 등 다른 나라로 전파되고 있다. 백용기기자

올 하반기 공공·희망근로 740여명 모집

제주시, 8-17일 신청 접수

제주시가 2021년도 하반기 공공근로 사업 및 희망근로 지원사업 참여자를 8-17일 사이 10일간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지역 백신 접종센터 지원사업 및 환경정비, 방역 등 희망근로 지원사업에 543명, 그 외는 행정효율성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약 200명 정도의 공공근로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희망근로 및 공공근로사업 참여 희망자는 제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및 제주도청 홈페이지(일자리 채용정보-공공근로 단기일자리)에서 사업별 채용계획을 확인해 본인이 희망하는 근무지역, 근무내용, 근무시간 등을 선택하면 된다.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이 15시간 이하로, 그 이하 연령대의 경우에는 근무시간도 사업 특성에 따라 최대 1일 8시간 근무까지 가능하다. 이에따라 구직희망자의 상황이 나 여건에 맞는 사업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희망근로 및 공공근로사업은 기존 재산 3억 원 미만이면서 중위소득 65% 이하인 자를 우선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만 18세 이상 도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윤형기자

전액무료 (80% 취업률 달성)
전기실무자양성 및 전기기능사 자격취득 과정

★ 취업처 다수확보 ★

대상
실업자 / 구직자 / 매출 1억5천 미만 사업자 / 재직자

교육기간
7월 개강 예정 - 7개월 과정
모집 근시일 마감

교육시간
09:00 ~ 16:00, 1일 6시간 (주 5일 교육)

교육내용
전기 배관, 배선, 약전, 소방 등

문의
064-749-3434

(주)제원직업전문학교
jejujewan.com

신승주 대표이사
김민준 대표이사
김민준 대표이사
김민준 대표이사

순사·전화상담 → 교육신청 ※ 본과정은 고용노동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으로 진행됩니다.

조경·원예·화훼 인테리어·건축·토목용

화산석(송이)/붉은색, 흑색
중국산 10kg 단위포장(중형 5~10mm, 대형 10~20mm)

백자갈, 회색자갈/오색자갈(이형, 인테리어용)
중국산 10kg 단위포장(20~30mm, 30~50mm)/(5~10mm)

마사토
국산 20kg 단위포장(소립 3~5mm, 중립 5~10mm)

바크(친환경 소나무 바크, 조경용 멀칭재, 원예화분용)
국산 35L 단위포장(중립, 대형)

상토, 산아초, 후가토, 녹소토, 적옥토, 패리이트

덕산조경원에자재(도, 소매)는
도내 최저가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HP : 010-5568-2936 · T/F : 064)744-8828
E-mail : duksanjo@naver.com · 주소 : 제주시 오광로 194(노영동)

그랜드보청기

그랜드보청기 확장이전 파격할인!!
구매고객 20만원 상당 녹음선착순 증정

2021년 그랜드보청기 히트브랜드 대상!!

초소형보청기
동영상 청취가능

「전문청능사, 어플리케이션 소리지절 보청기로 음악청취/원격 비대면 조절

보청기 가격의 거품을 걷어냈습니다.

제주시/서귀포시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삼촌들 흔저 전화 주십시오! 기다렸습다!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충전식 보청기 80만원대부터
청각장애인 보조금 최대 131만원

NAVER에 그랜드보청기 · Q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 그랜드보청기 전용 주차장 (무료주차)

한라일보 서사리 사거리 삼경구이 2층 제주시 서광로 225 2층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주) 리모델링
辛(신) 一(일) 祚(조) **직원 수시모집**

누수탐지·방수

017 포크레인 임대
신축 / 중축 / 리모델링
화장실 리모델링 / 아파트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불박이장 / 싱크대 / 신발장
도배 / 장판 / 물딩 시공
누수탐지·가스식 청진기 수도대관 누출정소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문의 **064.742.6234**
010.7599.6234